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서세스 대
파견기간 : 2010.7.3.~2010.7.31
학 부(과) : 디자인공학부
성 명 : 김진원
학 년 : 3

한 달이 지난 후 영국과 브라이튼은 저에게 친절한 나라, 사랑스러운 도시로 기억이 됩니다. 친절한 선생님과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 무척이나 좋았던 홈스테이 가족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항 도착 후 브라이튼으로 가는 중, 도착 후 다음 날 아침 집 앞 정원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냥 얼떨떨한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둘러싸였는데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감흥이 없었던 것이 영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영국이란 것이 실감이 났던 것은 바로 첫 식사부터였지요. “아~ 이게 영국이구나!” 라고나 할까? 실제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부터 지켜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영국 음식에 적응하기 위해 조금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 아주머니이셨던 조세핀이 해주는 음식이 다 고맙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국을 떠난 후에는 그리기까지 하네요. ^^ 그리고 영국은 정원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각 집마다 정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좁은 땅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어서 더욱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홈스테이에 적응해 갈 때 학교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이 대화를 함으로써 더욱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야 했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말을 기억해 응용하여 표현할 때마다 재미있으면서도 공부를 하

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수업- 학교에서의 수업은 늘 즐거웠습니다. 이 말 밖에 해 줄 것이 없네요. 한국에서의 시험을 위한 과도한 외우기식 영어 수업이 아니어서 더 좋았습니다. 마인드맵 형식의 단어 찾기, 게임, 듣기, 질문하기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반에 과달루프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 친구들이 조금 영어에 서툴렀기에 같이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들의 불어 식 영어발음을 알아듣고 서로 도와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저의 실력 또한 늘어남을 느끼게 되어 좋았습니다. 금요일 쉬는 시간에는 어학공부를 위해 온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티타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더 다양한 각국의 친구들과 사귀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영어공부도 되고 친구도 사귀어 즐거운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 늘 너그럽고 재치 있으셨던 저희 반 선생님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친구들, 일단 우리들은 서로 면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 빼고 영국으로 가는 때부터 스스럼없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하면서 점심때마다 같이 모여 수업얘기나 여행정보 등을 주고받았고 시간이 되는 날에 함께 런던에 가 뮤지컬도 보고 박물관도 가며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연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녁 때 pavilion park에 모두 모여 담소를 나누었던 기억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나 늦은 저녁 pub에서 먹는 맥주 한 잔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영국에 있음을 실감케 해 준 pub! 친구와 함께 가서 마신 맥주 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맛있는 음식이 거의 없기로 소문난 만큼 바깥음식보다는 pub에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제대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늦게 사귀었지만 호브파크에서 같이 여유를 느꼈던 카요씨와 호브파크의 사진!



홈스테이- 다음에 가시는 분들 역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낯선 곳에서의 홈스테일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집에서 묵어야 한다니 혹시나 저랑 안 맞는 분들을 만날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주인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음식을 빼면 나머지 모두는 처음부터 매우 편안했고 홈스테이 가족분들이 저희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자마자 주인아주머니께서 영국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Sunday roast를 대접해 주셨는데요. 맛을 떠나(^^) 그분의 친절하고 설명과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나게 된 스위스 친구들 역시 좋았는데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과 가족들이 하는 영어를 알아듣느라 초반에 그들과의 저녁식사가 수면제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



여행- 일단 영국 브라이튼은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Brighton & Hove로 묶여서 불리는 이 곳은 각 곳마다 색다른 매력을 풍기는 곳이지요. 특히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브라이튼의 Pavilion, Hove의 Hove park, Marena, West pier, Seven sisters입니다. West pier보다 Brighton pier가 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West pier가 관광지로 먼저 세워졌던 곳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해 지금은 골격만 남아 검고 앙상하지만 역사가 묻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저에게는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던 곳이었습니다. 오픈마켓거리에 있는 사진 갤러리에 들어갔을 때 이 곳 사람들 역시 그곳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 피어



브라이튼 피어



세븐시스터즈

런던은 두말 할 것 없이 뮤지컬과 박물관을 추천합니다. 제가 본 빌리엘리엇은 조그마한 무대였지만 알차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나 3시간 조금 안되는 시간동안 어린 주인공이 설새없이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관객들 모두 춤과 연기에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런던의 주요 박물관들은 모두 무료이기에 마음껏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나라의 역사와 아름다운 미술작품들이 많기에 눈이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꼭 가보세요!



아직 저는 여행 중이지만 마지막 돌아갈 때쯤이면 정말 이 곳이 그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이곳에 오기 전 느꼈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사뭇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고 문화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연수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영국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가 영국의 언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밖에도 눈과 가슴에 담아갈 것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지원해주신 학교에도 감사드립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서세스대
파견기간 : 2010.7.3~2010.7.3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박부현
학 년 : 4

대학 졸업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번번이 계획만 짜놓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영국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전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지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정말 너무도 가보고 싶었던 유럽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원을 했고 다행히도 선발되어서 영국에 다녀올 수 있었다. 사실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지만, 영어권 국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했었다. 영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잘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굉장히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저것 영국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드라마도 보면서 어학연수를 준비했다. 아침 8시 55분 비행기를 타야했기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항으로 출발했고, 그때는 얼굴만 알았던 우리학교 사람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들어섰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상해를 경유해서 1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나서 곧 착륙한다는 안내방송 후,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런던 시내의 모습이 창밖으로 한눈에 들어왔다. 낮은 건물,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어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국적인 풍경을 눈에 담고서 내가 정말 영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며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영국의 입국심사가 정말 까다롭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입국 심사를 위해 1시간 30분이나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다. 딱히 안내해주는 것도 없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니 다리도 아팠고 지겨웠지만, 혹시나 입국이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하고 있으니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차례가 돌아왔다. 혹시나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될까봐 잠시 마음을 졸였지만 걱정도 잠시, 1분도 안되어 입국심사가 끝났다. 뭔가 허무했지만, 빨리 영국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짐을 찾고 바로 출구로 나갔다. 인천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던 공항의 모습을 보며, 여기는 진짜 외국이구나 싶었다. 기분이 묘해져서 잠시 멍해있던 사이, 우리를 데리러 왔던 헤더를 만났고, 그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브라이튼으로 향했다. 입국심사 시간도 길었고, 런던에서는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브라이튼에 도착했을 때는 꽤 늦은 밤이었다. 밤에 도착한 덕분에 야경을 볼 수 있었지만, 12시가 다 된 시간이라서 그랬던지 홈스테이로 향하는 거

리에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유령 도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생활이 기대됐지만, 홈스테이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집에 도착한 후 웨닝턴 아저씨를 만난 후 그 걱정은 단번에 사라지더라. 늦은 시간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준 아저씨는, 오늘은 힘들었을 테니 꼭 쉬라고, 식구들은 내일 소개시켜주겠다며 방으로 안내해주었다. 다음날에 만난 식구들은 아저씨만큼이나 친절했다. 할머니, 니키 아줌마, 켈리, 잭, 그리고 귀여운 에이메이! 모두 거부감 없이 우리를 대해줬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은 거의 없었다. 저녁 식사 전에 가끔 할머니랑 오늘 어땠다는 대화를 간단하게 했을 뿐, 그 외 시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나에게 홈스테이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이 한 달을 보냈던 점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쉽다. 잭과는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후회 없이 말이라도 많이 걸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홈스테이를 하는 학생이 꽤 많았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앞방에 중국인 남학생 한명, 1층에 이탈리아 여학생 2명과 프랑스에서 온 아이 1명이 같이 머물고 있었다. 어디서 그렇게들 나타나는 건지 신기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위스와 우즈베키스탄, 체코에서 온 아이들과도 함께 지냈다. 뭐 이들 중 그나마 말을 많이 했던 건 스위스에서 온 자스민이었다. 성격도 꽤 쾌활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작았기 때문인지 그녀와는 꽤 많은 수다를 떨었다. 집에만 오면 배터리가 나가는 나보다는 유경이가 더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꽤 유쾌한 시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다. 자스민이 떠나기 전에는 같이 브라이튼 마리나에 가서 구경도 같이 하고 추억도 만들었으니까 말이다. 자스민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저녁 식사를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끼리 먹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왼쪽 같은 식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먹을 만한 음식이 나오기도 했다>

식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다. 다른 집에 비해서 별로 간섭도 안하고, 까다롭지도 않았던 가족들이었지만 식사 때마다 유경이와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침은 알아서 찾아 먹기 때문에 별 상관없었지만, 저녁은 항상 샐러드에 감자였다. 이것도 어찌다 한번이면 오히려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주말 제외한 5일 중 4일은 샐러드와 감자였고 하루는 피자를 주는 식이었다. 다른 집은 가족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영국 전통음식도 먹어봤다고 하는데, 어쨌서 우리 집만 유독 저녁 식사에 그렇게 소홀했는지 모르겠다. 샐러드도 좀 다르게 주면 좋았을 텐데, 매일 마요네즈 범벅으로 된 감자를 먹다보니 한 달만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가뜩이나 맛없기로 유명한 영국 음식이었는데, 집에서까지 그러니까 힘들더라. 한국음식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다음에는 제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녁을 먹고서도 1시간 만에 소화가 다 되는 그런 경우가 다음에 가는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학교 수업은 첫날 가서 시험을 치는 것부터 시작이었다. 그 시험은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서 치러진 것 같았는데, 토익이랑 비슷한 형식이었다. 영어 인터뷰를 할 때 너무 버벅거렸기 때문인지,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내 수준에 맞는 반은 초급반 정도였다. 만약 더 높은 반에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해 답답했을테니 그 정도가 딱 좋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다. 일단 내가 수업들은 반은 과들루프 친구들이랑 중국인 한 명, 그리고 우리학교 사람들로 이뤄져 있었는데,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은 우리를 가르치는 멜라니 한 명 뿐이었다. 이왕이면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을 좀 만나서 좀 배우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괜히 섭섭했다. 내 실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하고 잠시 좌절하기도 했었다. 뭐 이것은 솔직히 처음에만 잠시 그랬고, 곧 적응 잘 해서 수업에 잘 참여했지만 말이다. 초급반이라서 그랬던 건지, 아님 정말 선생님이 좋았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멜라니와의 수업은 정말 재밌었다. 모르는 단어 하나하나 따로 질문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억양이나 발음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신경써주었다. 특히 내가 'ə'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하더니, 비슷한 발음을 찾아주기 위해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았다. 그 덕분에 아예 'e'로 발음했던 것보단 조금은 나아진 발음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화내거나 짜증을 내기 보다는 어색한 분위기에서도 자신이 먼저 농담도 던져가고 웃으며 수업시간을 유쾌하게 만들어주었다. 학생들 스스로가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다. 괜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오히려 식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일반적인 내용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들로 얘기를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멜라니와 함께 하는 오전 수업 시간은 너무 즐거웠다. 만약 내가 영어로 말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감이 생겼다면, 그건 다 멜라니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전 수업은 집중할 수 있었고 정말 3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었다.

또, 같은 반이었던 과들루프 친구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흑인이라 뭔가 무섭다는 편견을 가졌던 것도 잠시,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었고 농담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그 중 한명인 사브리나는 한국 드라마를 꽤 좋아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종종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꽤 뿌듯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프랑스어도 배울 수 있었고,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다. 또, 한번은 그들의 파티에 초대받기도 했었는데, 가서 과들루프의 전통 춤도 배우며 신나게 그 분위기를 즐겼다. 원래 춤과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인지 그 친구들의 춤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고, 그를 구경하면서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버스시간 때문에 늦게까지 놀진 못했었지만, 국적도 다른 친구들과 그렇게 놀아본 것은 처음이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마지막날, 같은반 친구들과 함께>

귀국한지 거의 일주일이나 되어가는 지금, 나는 영국이 그다지 생각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지만, 그곳이 너무 그리다. 한국의 폭폭 찌는 무더위도 영국을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겠지만, 새로운 장소에서의 하루하루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많이 바꿔 놓았다. 예전에는 짜증부터 났던 문제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조금함 보다는 여유로움이 내게도 생겼다. 또, 외국인을 두려워했던 나는 사라지고, 이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해도 그들과의 접촉을 꺼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나로 변한 것 같다. 무엇보다 영어라는 언어를 치 떨리게 싫어했던 내가, 그래도 영어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한 달 동안의 방문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인 것 같다. 적어도 앞으로는 싫다는 이유로 영어를 멀리할 이유는 없을테니까. 내가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교에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좀 더 많은 학우들이 이런 기회를 잡고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서세스대학교
파견기간 : 2010.07.03~2010.07.3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전상영
학 년 : 4

4학년 1학기를 다니던 중 해외파견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고 내 인생에서 유럽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에 영국 서세스대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1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7월 3일 비행기에 올라 한 달이라는 여정 또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처음 브라이튼 이라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문화에 적응해가고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보며 새로운 도전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 제 자신에게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간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소감문을 통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 아름다운 도시 “브라이튼”

런던에서 남동부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브라이튼은 제가 파견된 서세스대학교가 있는 해변이 아름다운 관광도시입니다. 주말이 되면 런던을 비롯한 인근도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유명한 관광도시인 만큼 유명한 장소도 많고, 아름다운 공원들도 많았습니다.

몇몇 브라이튼의 유명한 관광명소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Brighton Pier 라고 불리는 해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곤 합니다.



바다위로는 놀이공원 및 오락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무료로 입장하여 원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도 있고, 다양한 오락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Royal Pavillion입니다. 옛날 영국의 왕들이 휴식을 취하러 자주 온 곳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건축양식이 섞여 있어 특유의 멋을 냅니다. 공원을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끔 친구들과 파빌리온의 공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특별히 강력 추천하는 Seven Sisters 라는 절벽입니다. 7개의 석회암 절벽이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자연의 위대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돌아보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아 말 그대로 정말 천국에 있는 기분 이였습니다.

브라이튼 에서의 생활Tip을 알려드리자면 꼭 교통카드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버스를 타시면 1.8 파운드를 편도로 지불하셔야 하지만 서세스대학 내의 학생매점에서 Monthly카드를 구입하시면 얼마든지 버스를 원하는 데로 탈 수 있습니다. 가격은 35파운드입니다.

◎ 홈스테이

제가 살았던 곳은 Pachum 이라는 브라이튼 북쪽에 있는 마을 이였습니다. 주택지역이라 항상 조용하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교회와 언덕이 있어 시간이 있을 때면 운동 삼아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멋진 광경을 즐겨 보곤 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John 과 Julie는 항상 아빠와 엄마처럼 저와 룸메이트를 챙겨주었습니다. 특히나 저녁을 항상 푸짐하게 차려주어 매일 오늘 저녁메뉴가 뭘까 맞춰보는 게 생활의 재미이기도 했습니다.

샤워에도 제한 없이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항상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행계획을 짤 때면 먼저 나서서 정보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영원이 잊지 못할 좋은 분들 이였고, 나중에 영국에 놀러올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라며 굿바이 키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영국인에 대한 호감을 만들어 준 너무나 고마운 분들 이였습니다.

밑에 사진은 저의 홈스테이 집과 그 주변의 모습입니다.



◎ 서섹스대학교 에서의 생활

저와 9명의 친구들은 이곳에서 Summer at Sussex 코스를 수강하였습니다.

먼저 Level Test를 거쳐 오전반과 오후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오전반에는 한국인 친구 1명과 일본인 친구 2명, 중국 친구 2명, 과달라루프 친구 6명, 말리 친구 1명과 수업을 들었고, 오후반에서는 한국친구 5명, 일본친구 2명, 중국친구 3명, 이탈리아 친구 2명, 말리 친구 1명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저희 또래 뿐만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 아직 젊은 저도 뭐든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또한 다들 너무 친절해서 수업 내내 웃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점이였습니다. 국가는 다르지만 생각은 거의 비슷했고, 금방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쉬운 편이였지만, 그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영어로 제 의견을 말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Final Test에서도 6.0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며 한 달간의 추억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에 꼭 놀러오라는 친구들의 말에 너무나 고마웠고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 다양한 여행의 기회

이번 단기어학연수의 가장 큰 수확은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 이였습니다.

저는 주말을 통해 영국의 수도인 런던과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런던은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3번을 다녀왔습니다.

브라이튼 에서 기차로 50분 거리로, 4명에서 한 조를 이루어 타면 할인을 적용받

아 20파운드로 왕복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저의 느낌은 그냥 “우와” 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TV와 사진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도를 보며 다른 장소들을 찾아가고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그들에게서 고마움과 함께 높은 문화수준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런던에서 찍은 몇 장의 사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버킹엄 궁전,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웨스트민스트 사원입니다.



왼쪽부터 빅벤, 런던아이, 코벤트가든 입니다.



왼쪽부터 내셔널 갤러리, 피카딜리 서커스, 트라팔가 광장입니다.

이 밖에도 대영박물관, 런던탑, 타워 브릿지 등 세계적인 명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그 장면들을 담아두었습니다. 해외파견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절대 보

지 못했을 뜻 깊은 시간 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셋째 주 금요일에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여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버 해협으로 가서 다시 페리로 바다를 건넌습니다. 10시간 가까운 여행 이였지만 도시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에펠탑을 보았을 때 모든 피로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물가가 조금 비싼 것이 옥의 티였지만 파리 역시 대표적인 유럽의 여행지답게 런던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왼쪽부터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왼쪽부터 폰네포 다리, 몽마르트 언덕, 개선문입니다.

세계사 책에서만 보던 역사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이곳에 파견된 것이 엄청 큰 행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해외파견을 오지 않고 한국에서 부질없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 모든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준 학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영어공부를 통한 제 자신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다양한 곳을 방문해보고 가슴 속에 많은 것을 담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우 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내가 만지고 보고 느껴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달 간의 여정은 저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얻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제 삶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 있게 맞서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신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 끝 -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석세스대
파견기간 : 2010.7.3 ~ 2010.7.31
학 부(과)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성 명 : 정 영 근
학 년 : 4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국으로 가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혼자서는 처음으로 가는 외국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계획을 세우고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또한 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대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가기 위하여 버스에 올랐다. 새벽시간 영국으로 함께 가게 될 친구 10명과 선생님을 만나 항공권을 발행하고, 간단한 출국심사를 마친 뒤 비행기에 올랐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라 그런지, 한국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마음에서였는지 설레고 신나기까지 하였다.

1시간 50분정도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의 푸둥공항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환승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푸둥공항에는 환승하는 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입국을 한 뒤 다시 출국심사를 거쳐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여기서부터 바로 영어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공항에 있던 중국사람들은 TV나 영화, 토익에서 들었던 영어와는 너무나 다른 영어발음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이해하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렇게 식은 땀을 한바가지 흘리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였다.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할 곳이 바로 입국심사가 까다롭다고 소문난 영국이었기 때문이었다. 장작 11시간이라는 시간을 비행기 속에서 보낸 후에 히스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같이 오시지 않고 우리끼리 공항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의견을 나눠가며 잘 찾아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씩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무사히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출구를 나서자 ‘UNIVERSITY’ OF SUSSEX’ 라는 팻말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를 4주 동안 담당하시게 될 멜라니를 만날 수 있었다. 4주 동안 머무르게 될 home stay 집으로 가기 위하여 다같이 버스에 타고 Brighton으로 향하였다.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파란하늘과 쨍쨍한 날씨, 사진이나 TV속에서만 보던 집들, 왼쪽으로 달리는 차를 보면서 외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긴장이 풀렸던 탓일까 금새 잠들어버렸고 1시간 정도 후 Sussex대학교에 도착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머물게 될 home stay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늦은 시간에 도착하였지만 home stay host였던 Julie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며 진심으로 환영해주었다. 간단히 짐정리를 한 후 Julie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젓가락’과 ‘부채’를 선물로 주었다.

무엇보다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부채를 보며 너무 좋아하였고, 사군자가 그려져 있었기에 부채를 보고 이쁘다고 극찬을 해주었다. 표정이 다양하고 감정표현이 솔직한 Julie를 보면서 4주 동안의 home stay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가 머물게 될 home stay 집에는 독일친구들 2명,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 한 명이 같이 살고 있었다. (이 친구들은 영어와 어순이 같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영어공부를 하면 네이티브 수준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Julie의 남편인 John이 아침부터 우리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길을 알려주었고, 이런저런 영국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미국식 영어발음에 익숙했기에 딱딱 끊어지는 영국식 발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John은 친절하게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주며 우리를 배려해 주었다.

버스를 갈아타고 4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될 Sussex대학교에 도착하여, 문법, 말하기, 쓰기 3가지의 테스트를 마친 후, 반 배정을 받게 되었다. 오전 수업시간에는 문법과 말하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오후수업시간에는 영국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오전class 에는 한국 친구 4명, 중국, 일본, 과달루프(남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Mellanie라는 분이셨다. 한국을 비롯해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뭉쳐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 장애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선생님께서 각각 다른 국적의 친구들과 자리배정을 해주셨고, 이로 인하여 자연스레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유쾌한 선생님 때문에 재미있는 수업이 되었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음식문화와 음악, 연예인, 게임, 드라마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드라마가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었기에 덩달아 신이 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3주차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과달루프 친구들이 파티에 초대해 주어서 그들의 춤과 음악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춤과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파티를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쑥스러움이 많은 나로서는 부럽기도 하였다. 오후 수업시간에 진행된 영국 문화시간에는 영국의 전통음식에 대하여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이는 4주 동안 영국에서 생활하며 다채로운 음식을 찾아 직접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이란 등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로부터 각 나라의 전통음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음식의 차이점과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음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수업시간동안 처음에는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또한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상황에 대한 예시도 많이 들고 손짓과 몸짓, 그리고 그림까지 이용해야 했었다.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자 내 의견을 상대가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학교수업이 끝난 뒤로는 룸메이트와 함께 길물어보기, 우체국이용하기, 술집이용하기 등 한 가지씩 미션을 정하여 영어를 연습하기도 하였다.

첫 주말에는 지도 한 장을 들고 런던으로 향했다. 오전 11시에 버킹엄궁전에서 근위병 교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갔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었다. 영국의 상징인 병정과 같은 근위병의 모습, 그리고 마차와 군악대 등은 정말 멋있고 아직까지도 지속되는 것에 대하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린파크와 빅벤, 국회의사당, 런던아이, 내셔널갤러리, 피카딜리서커스, 대영박물관 등 지도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만 걸으면 나타나고 또 조금만 걸으면 나타났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잠시 웅장한 모습과 세심하게 새겨진 조각과 신기함에 매료되어 버렸다. 여기 저기 박물관과 명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발이 닿는 곳으로 다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주말을 이용하여 런던, 세븐 시스터즈, 브라이튼 피어, 쇼핑, 프랑스 등 쉬지 않고 바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을 볼 수는 없었다. 수업이 5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을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짧은 시간동안 영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여유롭고 공원을 좋아하며 친절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공원을 가든지 잔디밭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누워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는 항상 보행자를 우선시 해주었다. 또한 한국의 버스와는 달리 영국의 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탑승하기 쉽게 계단이 없었으며 차체가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된다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4주라는 시간이 지나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다. 저녁을 먹고 쇼파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Julie,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특히 4주 동안 우리를 자식처럼 챙겨주고, 보살피주었던 Julie와의 아쉬움이 가장 컸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밥을 해주기도 하였고, 식사 후엔 늘 푸딩과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를 주셨기에 배가 터지도록 먹기도 하였다. 한국 컵라면을 좋아하는 Julie는 언제든 영국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 꼭 다시 자기의 집에서 머물러라 말해주었으며 인턴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따뜻한 말까지 해주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히스로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고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다. 다시금 영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번 연수를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4학년이라는 늦은 시기에 단기어학 연수를 갖기에 아쉬움이 큰 나로서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연수를 갈 것을 권하고 싶고, 또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단기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과정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Tip?

4주 동안 영국으로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가장 큰 아쉬운 것은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Tip을 정리해보았다. 우선적으로 Home stay집이 학교로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지 대학교로 갈 수 있다. 영국은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day ticket이나 month ticket을 사용하는데, 이는 대학교에서 학생할인(학생증 필요)을 받으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연수의 경우는 학생증 발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위의 Sussex대학교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등 방법으로 구입하면 된다. 그리고 주말에 런던으로 갈 때 보통 기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4명씩 group을 짜서 기차표를 구입하면 훨씬 저렴하다. (왕복20파운드, 1인당 5파운드/시간 때에 상관없이 기차를 탈 수 있다.) 브라이튼 시내에 위치한 old stein정류소 앞에 위치한 One Travel이라는 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나 음식을 구입할 때는 ASDA, TESCO 등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이 6~7시 사이에 문을 닫기 때문에 쇼핑을 할 경우는 서두르는 것이 좋으며,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 치안이 좋지않은 않았다. 물가가 비싸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햇반이나 컵라면, 김 등을 가져간다면 점심시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단기연수에서 점심값은 별도였음)



<홈스테이 집 - 4주동안 생활 했던 곳> <세븐 시스터즈 - 이러한 절벽이 7개가...>



<런던 가는 길 -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인>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영국 "The University of Sussex"

파견대학 : 영국 서섹스 대
파견기간 : 2010.07.03~07.31
학 부(과) : 응용화학공학과
성 명 : 정희정
학 년 : 4

어느덧 긴 여름이 다 지나고 이곳에 온지도 한 달이 넘어 약속한 4주간의 수업이 끝났다. 그동안 넘어간 책장만큼이나 나는 이미 변했고 성장했으며 많은 것을 얻었다. 그것은 비단 영어수업만이 가져온 결과는 아닐 것이다. 무어라 정확하게 설명할 순 없지만 그것은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홈스테이, 혼자 떠나는 여행, 온전히 영어로 이루어진 세상에서의 생활과 같은 하나의 커다란 '문화'가 아니었을까. 우선 짧았지만 그 만큼이나 짙한 기억으로 남은 내 4주간의 시작부터 얘기해 볼까 한다.

사실 무엇부터 말해야 좋을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된다. 늘어놓고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특별한 기억들로 가득한 경험들 때문이리라. 내게 있어서 '경험'이란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는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되도록 많은 것을 경험해보는 것이 인생의 큰 바탕이 된다고 믿는다. 내게는 근거 없이 무작정 낙천적인 구석이 있어서 준비기간 내내 그저 어찌되든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 그간은 사실상 그저 망망대해 같았던 뜬구름 잡는 일들이 막상 영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느껴지는 짜릿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경험으로 충만했던 나의 지난 한 달의 첫 단추는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시작되었다.

우린 정말 모두가 정말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인천공항에 모였다. 이른 아침 벌써부터 장시간 비행에 지친 듯 주눅이 든 우리는 이른 아침식사를 했다.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로 후에 다들 서로 아주 친해져서 같이 여행도 가고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게 새롭고 낯설어서 서로 꾸벅꾸벅 인사를 건네며 어색해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어찌 어찌 식사를 다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 두 시간여 만에 상해 푸둥 공항에 도착했다. 인솔자 없이 비행기를 환승해가며 이렇게 긴 비행을 해본건 다들 처음이라 해메기도 많이 해맸지만 무사히 비행장 앞에 도착했는데 아뿔싸! 내 비행기 티켓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말 심장이 바닥에 철퍼덕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울상이 돼서 온 길을 정신없이 되돌아가며 살피는데 한 일본인 여행객이 내 얼굴을 보더니 "Are you HeeJung? Is this yours?"하며 티켓을 건네는 게 아닌가.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는데 급하게 뛰어가다가 이걸 떨어뜨리더라는 것이다. 어찌나 고마운지 '땡큐, 땡큐'를 스무번쯤 한 것 같다. 하마터면 혼자 국제미아가 될 뻔 했던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위안화가 없어 자판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내게 한국인분이 사주신 시원한 커피 한 캔과 스무 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비행 내내 일본어와 서투른 영어를 섞어가며 내게 말을 걸어주시고 모두 잘 될거라며 격려해주신 옆 자리 일본인 할머니를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겨우 도착한 영국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서의 입국심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엄청난 인파 속에서 한 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 한 인터뷰는 사실상 정작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긴장되고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질문들이어서 이를테면 여기 온 목적과 어디서 머무를 것인지, 숙소 주소는 어디인지, 어느 학교 프

로그랩으로 왔는지, 영국 학교에서 보내준 증명서는 어떤 것인지, 돈은 누가 대주는 지, 부모님의 직업은 뭔지, 미지불한 금액은 없는지, 여비는 충분한지, 공항에 누가 데리러 나오기로 했는지, 보험 증명서는 가져왔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한 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산 것이 물 두 병이었다. 값은 약 1파운드가 조금 넘었으니까 한화로 2천원 정도. 그것도 1+1 상품이어서 실제로는 한 병에 2천원쯤이라고 보면 된다. 편의점이 거의 없는 이곳 영국에서는 전반적인 물가가 한국보다 꽤나 비싸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그저 '아끼면 된다.'고 생각해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마중 나온 인솔자가 학교로 모두 데려와서 각자 택시를 태워 겨우 10시가 넘은 시각에 홈스테이 집에 도착했다. 홈스테이 호스트 할머니는 2년 전에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사시는데 다른 학생들 없이 은미와 나 이렇게 둘이 한 방을 쓰고 이따금씩 손자와 손녀가 놀러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곤 했다. 여하튼 첫 날은 늦게 도착해 짐정리 할 것도 없이 잠들었다. 다음날 토스트와 시리얼로 가벼운 아침식사를 하고 시내 구경을 나갔다. 처음 타본 2층 버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찌나 즐거웠던지 왕복에 3.6파운드(한화로 약 7~8천원)를 내고도 그다지 아깝지 않았다. 나는 첫 날 핸드폰을 개통하고 해변에도 갔다가 간단히 점심을 먹고 또 걷고 또 걸었다.

드디어 월요일. 학교 가는 첫 날이다. 오늘은 레벨을 결정하는 시험이 있을 거라고 들었다. 홈스테이 할머니에게 몇 번 이고 학교 가는 길을 물어 겨우겨우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여기서는 모든게 그랬다.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도, 홈스테이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것도, 학교에 도착해서 일정을 따라가는 것도 전부다 본인 소관이다.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일러주지 않는다. 그저 본인의 일은 본인이 알아서 알아보고 준비하고 따라갈 뿐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법, 절대 없다. 그러니 만약 내 지인이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면 조심스레 충고해 주고 싶다. 어디에서나 무얼 하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라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캠퍼스 도우미를 따라 캠퍼스를 한 번 둘러본 다음 시험을 봤다. 시험은 간단한 토익 문제(파트5)와 간단한 인터뷰, 그리고 주제에 대한 영작 논술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벌써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갔다. 금방 본 시험 결과로 각자 반을 배정 받아 오후에는 British Culture 수업을 한 시간 들었는데 이는 영국의 역사와 지리, 사람들의 특성, 관습 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내게는 사실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영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Fish & Chips 정도가 전부였던 내게 수플레니 송아지 콩팥 스테이크니 하는 것이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떠나서 참 낯설고 회한하게 들렸다. 그러나 누가 그랬던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지금이 아니면 이런 문화적 차이도 경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미친 척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운 좋게도 내 실력에 비해 비교적 높은 반을 배정 받아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교육이나 국제적인 문제, 종교 및 정치적인 문제 등 까다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클래스 내에서도 꽤나 열띤, 가끔씩은 과열되기도 한 토론이 벌어지곤 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British Culture 시간을 괴로워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영어교육의 초점이 대부분 미국식 영어에 맞춰져 있는 한국인의 경우, 스펠링부터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며 교과서에 버젓이 미국식 영어와 호주식 영어를 지나치게 낮춰 말하는 경향의 수업이 불편하며 때로는 불쾌할 수 있다. 특히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많은 영국 주변 국가 학생들이 다 아는 유럽식 생활 방식과 음식, 지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때, 갈리시아 어와 그리스어, 스페인어 등을 논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이지 달나라에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미국식 발음과 호주식 발음이 나쁘다고 말할 때와 종교적인 문제를 논할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점차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그렇게 첫 월요일이 가고 이후로는 오전에 전반적인 영어를 배우는 시간과 오후에 영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 주 강의실이 바뀌고 때로는 선생님이 바뀌고 또 우리와 같은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수업의 분위기는 매 주 새로웠다. 나는 클래스에서 영어가 서투른 편이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제법 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긴장하고 준비한 것 보다 이야기가 짧아지기 일쑤였는데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라건데, 주눅 들지 마라! 내가 놓친 시간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금사과와도 같은 것인데 당신, 스스로 주눅 들어서 한 달 이라는 짧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길 바란다. 대체로 수업은 만족스러웠다. 30분 쉬는 시간에는 컴퓨터실에 가서 컴퓨터를 해도 되고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 잠을 자도 된다. 그것은 실로 내가 꿈꿔오던 캠퍼스의 낭만이었다. 캠퍼스 대부분의 구역에서 무선인터넷이 잡히고(노트북은 안되는 경우도 있다) 몇 발자국 떼지 않아도 곳곳에 식당, 매점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이 학교 정문에 하나, 학교 안에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생활은 아주 편했다. 식당에서 먹는 밥은 3~4파운드부터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비싼 영국에서 먹는 것에 사치를 할 순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대체로 가볍게 빵을 먹거나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을 싸와서 20펜스 주고 뜨거운 물을 사서 먹곤 했다. 점심은 그럭저럭 알아서 대충 먹으면 되었고 아침, 저녁은 홈스테이 집에서 제공 되었는데 아침엔 시리얼에 토스트가 나오고 저녁에는 미트파이나 파스타와 같은 푸짐한 메뉴가 나왔다. 우리는 10명이 5그룹에 나뉘서 2명씩 한 홈스테이 집에 살았는데 다섯 그룹이 대체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각자 달랐고 인터넷 사용 유무도 달랐으며 생활 및 식사 만족도도 각자 달랐다. 이건 정말 복불복이라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탓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푸짐한 식사를 양껏 먹는다는 것이 정말 간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주말에는 꼭 어딘가로 나갔다. 몇 번 되지 않는 주말이란 시간을 최대한 알뜰하고 실속있게 써야 했다. 한 번은 8명이 4인 할인 티켓을 두 장 끊어서 런던으로 놀러갔다. 최대한 아끼고 아끼려고 1파운드도 안하는 샌드위치를 먹고 차비를 아끼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물 사먹는 돈을 아끼려고 식수가 나오는 공원을 찾아다니다

보니 뒤꿈치가 헐어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다. 절뚝거리며 이틀을 더 고생하긴 했지만 알차게 많은 걸 보고 온 것 같아서 의미 있지 않았나 한다. 하지만 정말로 런던을 '제대로'보고 싶다면 좀 더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할 것이다. '런던에 싫증이 난 사람은 인생에 실증이 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싫증이 날 만큼 뭔가를 진득하게 봐야 진짜 그 속에 담긴 런던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지 않을까. 바쁘게 명소만 둘러보고 카메라만 들여다보면 육안으로만 보이고 카메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감동이 상실될 수 있다. 카메라는 과감히 내려놓고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다. 옆서에 있는, 인터넷을 뒤지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내가 찍었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는 천편일률적인 사진보다는 나만이 찍을 수 있는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사진을 찍어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특별하지 않나 한다.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운 영국에서는 어딘가를 갈 때는 꼭 일기예보를 챙겨봐야 하며 일기예보도 100% 믿어서는 안된다. 세븐 시스터즈에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아지리라는 예보만 믿고 하염없이 걸었는데 바람은 자꾸 거세지고 날씨는 너무 흐려서 오들 오들 떨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걷고 걷고 걷는 것이 지겹고 힘들어서 돌아오는 길에는 은미랑 한국 동요부터 시작해서 트롯트, 가요를 부르면서 비교적 흥이 나서 걸었다. 여행자라면 되도록 많이 걷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껴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서 하는 영어수업과 타국에서 하는 영어수업의 진짜 차이점이다. 문화 전체를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자세이지 않나 한다.

영국에서는 불편한 것이 많다. 호주에서 6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그 동안은 정말 서양식 식성이라 자부했었고 뭐든 잘 먹었다. 그런데 여기서의 4주 동안은 정말 한국음식이 너무 그리워 한국에 돌아가면 먹을 것들, 갈 곳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런던에 갔을 때 포기김치를 한 팩 샀는데 정말 한국이 그리울 때 한번 씹 먹으면 큰 위안이 됐다. 영국 음식은 대체로 아주 짜거나 아주 달거나 아주 기름진 것이 특징인데 그것도 점차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차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나의 경우는 후자라서 순두부 찌개 라든지 선지 해장국 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리스트에 써놓고 때로는 나뭇잎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불판에 삼겹살 올라가는 소리를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금새 4주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돌아가서 직접 한국식을 먹을 수 있겠지. 벌써부터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또 불편한 점은 홈스테이 집이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딜 가나 인터넷이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IT 강국인 한국의 학생들에게 참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점차 익숙해진다는 사실. 학교 컴퓨터실에서 웬만한 메일 확인은 다 되니까 한글파일을 못 열어본다든지 메신저 설치가 안된다든지 인터넷뱅킹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편함은 없다. 또 다른 문제점들로는 전기가 잘 나간다가 콘센트가 꼭 들어맞지 않는다가 편의점이 거의 없어서 우유를 하나 사려고 해도 집에서 대형 마트가 있는 곳 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 곳이 어디든 새로운 문화에서 겪는 가벼운

문제점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콘센트를 1분에 한번 씩 다시 꽂아가며 소감문을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기도 하고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으니 그런 도전이라면 나는 언제나 환영이다. 물론 쉽지 않은 4주였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활력을 되찾았으며 동기부여가 되었고 많은걸 배웠음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내게는 특별한 일들이 기적처럼 많이 일어났다. 그것은 때로는 좋은 일이기도 했고 때로는 슬픈 일이기도 했다. 집에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일들이 산더미지만 그래도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지 못할 만큼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200% 만족한다. 그리고 내게는 해냈던 것들 보다 많은 해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에 또 도전하려고 한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밀천인데 밀천 두둑할 때 할 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의 짐을 꾸린다. 또 다른 도전이다. 해낸것 만큼 더 잘 해내리라. 뜨거운 청춘 La Brava!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석세스대학교

파견기간 : 2010.7.3~2010.7.3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이유정

학 년 : 4

영국은 나의 꿈의 나라였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나에게 ‘다른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나는 영국이라고 대답했다. 중, 고등학교때 세계사 시간이나 사회시간에 배운 영국은 언제나 세계 1위의 강국이였다.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등으로 알고 있었던 영국은 이번 여름 나에게 다가왔다. 너무나 설레이고 즐거웠던 나의 영국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미리 짐을 싸놓으려 했지만 언제나 일이 닥치면 하는 게 울려서 전날 짐을 싸고 환전을 하고 모든 것을 다했다. 잠이 안와서 완전 밤을 꼬박 새고 비행기에 탔다. 16시간이라는 오랜시간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버틸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다. 하지만 역시 세상에서 제일 빠른건 시간이었다. 어느덧 우리는 영국에 도착해있었다. 영국의 입국심사만 1시간이 걸린거 같다. 정말 오래 걸려서 안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12시정도 였다. 홈스테이 주인인 윌리엄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바로 씻고 잠이 들었다. 부현이와 내가 머문 홈스테이에는 정말 대가족이 있었다. 윌리엄, 윌리엄 부인, 16살 켈리, 11살 잭, 5살 에이메이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이 바뀌었다. 맨처음에는 앞방에 중국인 남학생과 이탈리아 여자 2명이 있었다. 나중에 계속 바뀌어서 프랑스 15살 어린 여자아이와 모든 애들이 간 뒤 슬로바키아 여자아이와 스위스 여자아이가 왔다. 그리고 또다시 모두들 간 뒤 지금은 독일근처의 어느 나라의 여자아이 2명이 와있다. 처음에는 정말 의문이었다. 이 집에 도대체 몇명이나 사는 것인지 알수가 없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중에 제일 친해진 아이는 스위스에서 온 자스민이라는 15살 소녀이다. 가장 불임성이 있었고 바로 앞방에 살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 애들은 동양인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아니었다. 같이 사진도 찍고 마리나에 같이 놀러갔었다. 서로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에는 많은 장애가 있기는 했다. 그래도 같은 나이 때라서 좋아하는 분야가 매우 비슷해서 모든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2주만 있다가서 좀 서운하긴 했다.

홈스테이에서는 좋은 점은 다른 아이들을 많이 만날수는 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홈스테이와는 좀 달랐다. 내가 생각했던 홈스테이는 저녁을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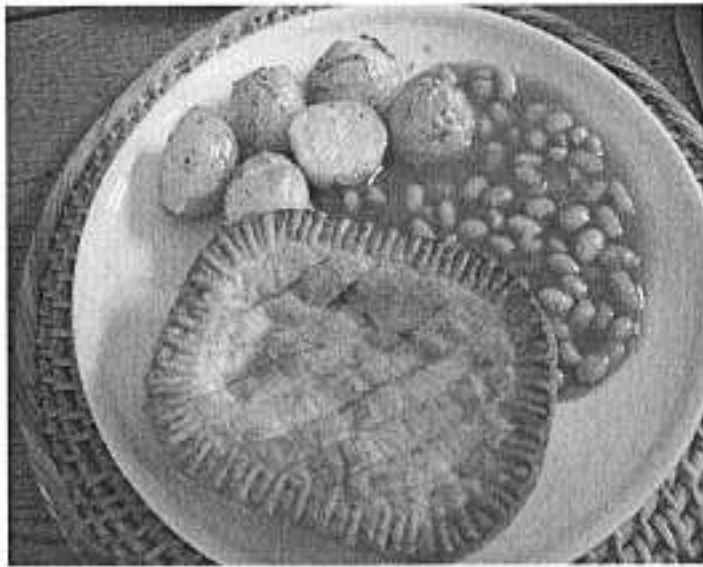


그림 1 그나마 괜찮았던 식단. 다른 홈스테이집보다 식사는 매우 형편없었다.



그림 2 거의 대부분 이런 음식을 먹었다.

하루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파티나 큰 잔치가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했다. 저녁은 6시에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끼리 모두 먹은 뒤 그 뒤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친해질 일은 거의없었다. 켈리랑은 말을 거의 못했고, 잭과는 아주 조금 말했다. 에이메이는 너무 어려서 말을 할 수 없었다. 맨 처음 출발할 때 꼭 홈스테이 할 때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막상 영어실력을 늘릴 기회는 없었다. 홈스테이의 이런 규칙도 한 몫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더 걸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된다. 잭과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좀 걸고 조금 얘기했을 때 잭은 언제나 친절하게 다 받아주었다. 나중에 외국인이 안무서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다섯명의 가족(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파리로 휴가를 가서 2주동안 없었다. 우리가 떠나기 하루 전에 돌아온다고 하니 그 때 사진을 찍고 좀 더 말을 해볼 계획이다.



그림 3 앞방 친구였던 자스민과 함께 마리나에서.



그림 4 앞방 친구였던 자스민과 함께 마리나에서

학교에서는 나의 영어 말하기 실력과 토익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아마도 하급반에 들어간 것 같다. 오전수업의 같은 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과돌루프 친구들이었다. 모두들 같은 학교에서 왔다. 우리 학교에서 간 학우들중 몇 명 빼고는 다 우리반이었다. 그래서 다행히 소외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하급반이라서 그런지 선생님이 매우 재밌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셨다. 처음에는 너무 쉬운 문법을 가르쳐줘서 좀 실망했었는데 문법보다는 말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춘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말하면서 리액션에 초점을 두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내 말을 알아 들을 수 있게 최대한 설명을 하는 쪽으로 회화를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늘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늘은 기분이다.



그림 5 과돌루프 친구들과 함께한 파티



그림 6 과돌루프 친구들과 함께한 파티

처음에 반에 흑인들이 반이고 나랑 같이 온 친구들이 반이라서 이게 뭔가 싶었다. 회장언니는 스피킹이 우리보다 잘해서 더 높은 레벨의 반을 들어갔다. 거기에는 스페인, 독일,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좀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우리반이 분위기가 더 좋은 것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다 착했다. 정말 나와 같은 레벨의 영어 스피킹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듣기는 편했지만 모두들 말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야했다.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영어사전을 찾아가면서 말했고, 옆에 우리학교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불어를 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발음이 너무 달랐다. SINGER를 우리는 씽어라고 발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싱거라고 발음하고 GIVE를 우리는 기브라고 발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지브라고 발음해서 들으면서도 뭘 말하고 싶어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친구들과는 확실히 친해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에 와서 아주 친해진 친구가 있다. 중국인인데 빈센트라는 친구다. 이 친구와는 오전반, 오후반 모두 같이 듣는데다가 계속 옆에 앉게 되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알고 보니 중국 사업가의 아들이었다. 돈이 많은 것 같았다. 여기에 유학을 온 사람들은 모두들 형편이 좋아 보였다. 오후반에 같이 듣는 일본인 아저씨는 일본에서 교수라고 했다.

매일 엄청나게 비싼 요리를 먹는다며 말을 했고, 중국인 친구인 빈센트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건 전혀 비싼게 아니라고 말을 했다. 뭔가 부럽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올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국식 발음을 듣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가끔 밥을 먹을 때 아저씨와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억양이 엄청 세다. 그리고 목소리가 매우 낮아서 웅얼웅얼하는 것처럼 들린다. 언젠가 한 번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옆에 앉은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가 한 30분간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LA에서 사는 미국인이었다. 오랜만에 미국발음을 들으니깐 뭔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오래도록 얘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 이후로 외국인에 대한 무서움이 확 없어지고, 영어에 대한 공포심과 무서움이 사라진 것 같다.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그래도 단어를 나열은 할 수 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외국인이 대충 어떤 단어를 나열하면 웬만큼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최대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니 외국인들이 알아 들었다.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듣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특히 영어를 안 쓰는 나라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정말 내가 말을 하면서도 이건 영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을 했는데도 다 알아듣고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파리여행을 갔을 때 옆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대학생과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 정말 내가 생각해도 명칭하게 말하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학생은 모두 알아들어줬고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영국에 와서 가장 많이 얻은 것은 외국인에 대한 무서움을 없앴다는 것과 외국인과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얼굴에 첩판을 깔고 먼저 외국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길을 잘 못찾아서 잘 헤맨다. 부현이가 참 길을 잘 찾아서 다행이었다. 런던에서도 나는 부현이 뒤만 졸졸 쫓아 다녔고, 파리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뒤만 졸졸 쫓아다녔다. 하지만 큰 곳은 잘 찾을 수 있었지만 작은 상점이나 어떤 건물을 더 확실하게 찾기는 어려웠다. 그럴때마다 내가 항상 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다.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은 확실히 터득했고, 그 덕분에 많은 친구들을 사졌다. 앞으로 로마와 프라하를 갈 계획이다. 영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꼭 써먹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영국에서의 이번 연수는 나에게 많은 추억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새로운 세상과 맞서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다른 학우들이 영국 연수 기회를 얻게 된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서섹스대
파견기간 : 2010.7.3~2010.7.3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강아람
학 년 : 2

7월 3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10m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자욱했다. 혹시나 비행기가 결항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였지만 어학연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섰다. 우리는 중국 상해를 거쳐 런던으로 향했다. 한국에서 상해까지 2시간, 상해에서 런던까지 13시간. 약 20시간 만에 드디어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를 마중 나온 튜터와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다시 학교에서 두 명씩 각각 홈스테이 집으로 택시를 타고 향했다. 홈스테이 집에 도착하니 어느덧 밤 10시가 되었다. 이번 어학연수 중 영국을 선택한 이유에 홈스테이라는 점이 상당 부분 차지했던 터라 기대가 되었다. 홈스테이 주인이었던 페니와 마이클은 포근한 인상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영국에서의 첫째 날이 지났다.



다음날 옆집에 홈스테이 하는 진원언니, 덕진이 그리고 소진이와 나 이렇게 4명이서 브라이튼 시내를 구경하러 갔다. 브라이튼은 잉글랜드 남부 지방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이다. 날씨도 화창하고 주말이어서 브라이튼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브라이튼 피어와 바닷가를 구경한 뒤 브라이튼의 큰 쇼핑센터인 처칠스퀘어를 구경했다. 갈 때는 마이클이 태워다 줬지만 집으로 돌아갈 땐 우리끼리 버스를 타야했다. 브라이튼의 버스비는 한 번 탈 때 £1.80로 한국보다 3배 가까이 비싼 편이다. Sussex대학교 내 매점에서 한달 짜리 버스티켓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정식학생이 아니라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교내 여러 매점을 돌아다녀보면 가끔 아이디카드를 확인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

고 사는 것이 좋다. 가격차이가 몇 만 원 정도 차이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주택가에는 상점이 거의 없고 집들이 비슷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브라이튼의 버스는 방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광판에 나오는 정거장 이름을 잘 보고 내려야 한다. 간혹 전광판이 없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헛갈릴 때는 미리 버스기사에게 말해두는 것이 좋다.

처음 학교에 가는 날. 우리 집에서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브라이튼 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해야 했다. 학교까지 약 한 시간이나 걸리는 바람에 아침에 일찍 나와야 했다. 학교 근처에서 홈스테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Summer Sussex 과정이었다. 우리가 간 날부터 시작한 것이 좋았다. 첫날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학교 소개를 받고 반을 나누기 위한 테스트를 보았다. 테스트는 간단한 문법 시험과 작문, 그리고 1:1 대화였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English Culture 수업을 받았다. 우리 반은 대다수가 우리학교 학생이었고 일본, 중국, 이란인이 한명씩 있었다. 다양한 국가가 섞이지 못하고 한국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수업시간에는 영어로 각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오전에는 문법과 독해를 배웠다. 한국에서의 딱딱한 문법수업과는 다르게 토의가 중심이 되어 게임이나 역할극 등을 통해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법과 독해를 잘 하였지만 회화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 왔지만 자신의 생각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문법을 달달 외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직접 말을 하면서 문법을 사용해 보는 영국의 수업 방식이 너무 좋았다. 오 전반은 우리학교 학생들과 과들루프, 중국, 일본인 등 열명 남짓으로 구성되었다.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동안 매일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라 많이 친해졌다. 과들루프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 초대를 하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 쉬는 시간엔 Coffee Time을 가졌다. 학교측에서 커피와 음료, 과자들을 준비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며 즐기는 시간이다. 다른 반 학생들 모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다 수 있는 좋은 기회 였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



수요일과 금요일엔 Culture 수업이 없기 때문에 1시면 수업이 끝났다. 일찍 끝나는 날에는 브라이튼 근처 구경을 할 수 있었다. 로얄 파빌리온이나 세븐시스터즈 등은 주중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갈 수 있다. 세븐시스터즈는 정말 풍경이 아름다워 날씨가 좋은 날 꼭 가보기를 추천한다.

주말에는 런던과 프랑스를 구경 하였다. 런던은 브라이튼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당일로 다녀 올 수 있다. 4명이 당일 왕복표를 끊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숙박을 구하지 않고 당일여행으로 2번 다녀왔다. 프랑스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여행사를 통해 갔지만, 가격 대비 만족스럽지 못한 여행이었다. 미리 숙박이나 교통편을 알아보고 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프랑스 여행을 생각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미리 여행계획을 세워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에 음식이 잘 맞지 않아 한국 음식이 너무나 그리웠다. 영국의 주식은 감자로 식탁에 감자가 빠지질 않는다. 아주 가끔 밥을 먹기도 하지만 한국과 같이 찰진 밥이 아니라 낱알이 흩어지는 밥이다. 하지만 홈스테이 주인이 매끼니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입맛도 적응이 되 날이 갈수록 한 접시를 모두 비웠다. 홈스테이 집에서는 아침과 저녁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점심밥은 학교에서 해결해야 했다. 학교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 보통 샌드위치나 빵 종류가 2~3파운드이고 학교 식당음식은 3~4파운드 정도이다. 미리 대형마트에서 빵이나 먹을 것을 사다 두었다가 싸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영국은 물 값이 비싸다. 우리나라처럼 정수기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다니는 것이 좋다. 화장실도 찾기 힘들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유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까운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

영국하면 오락가락하는 날씨라고 부를 만큼 항상 비가 온다고 들었던 터라 걱정이 되었지만 영국의 날씨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우리가 갔던 첫 주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보통 영국의 최고기온은 20~25도 사이로 습하지 않아 기온이 높아도 시원하다. 우리가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 비는 2~3번 정도 밖에 오지 않았고 그마저도 오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갠다. 우리가 있던 브라이튼은 바닷가라 바람이 강해 아침, 저녁은 쌀쌀하기 때문에 여벌의 긴팔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거의 모든 상점들이 6~7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쇼핑은 그 전까지 해야 한다. 여름에 영국은 해가 밤 9시까지 지지 않기 때문에 상점이 문을 닫은 후엔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좋다. 내가 홈스테이 하던 집은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저녁식사 후 남은 시간에 방에서 컴퓨터를 했다. 많이 돌아다녀 볼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집도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나눠준 아이디로 학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다.

어학연수 기간 중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는데 같이 간 어학연수 동기 언니 오빠들과 함께 모여 Pub에 가서 축구시청을 하였다. 또, 로얄 파빌리온에 있는 잔디밭에서 다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한 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나에게 영국에서의 한 달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 이었다.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의 지나친 걱정이었다.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영어실력을 알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준비해갔더라면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같이 갔던 언니, 오빠, 동생들 모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좋은 인연이 생긴 것 같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경험의 연속인 나날들이었다. 밥을 먹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길을 묻는 것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운 기억이 되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Sussex 대학교
파견기간 : 2010.7.3~2010.7.31
학 부(과)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성 명 : 박은미
학 년 : 4

두둥!

7월 3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지금 나는 영국 갈 준비에 바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영국 Sussex 대학교와 함께한 한 달 간의 이야기를.

우선 영국하면 생각나는 우중충한 날씨.

그건 고정관념이다. 그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 물론 늘 구름이 왔다 갔다 하지만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만큼 해도 많이 비친다. 비가 많이 온다기에 챙겨온 우산은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펴 본 적이 없다. 비가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비마저 낭만적이어서 한번 맞고 만다. 쫄딱 맞을 만큼의 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결국 우산은 짐만 되었다. 영국의 여름(7월)을 감히 한국 여름과 비교하지 말라. 영국의 여름은 한국의 가을이다. 그렇지만 선크림은 필수이다. 자외선으로 얼굴이 타들어 가는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옷들은 여름이라기에 반팔 90%, 긴팔 10%로 챙겨왔다. 하루를 지내고 알았다. 정말 반대로 옷을 챙겨왔다는 것을..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영국에서 긴팔 옷을 대체 몇 벌을 샀는지 모르겠다. 점퍼를 입고 다녀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다.



가디건은 그냥 필수 항목이며, 겨울에 입는 기모 후드티 하나 가져가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타지에서 감기 걸리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으니 감기약을 꼭 챙겨가는 것이 현명하다. 날씨를 잘 생각해서 옷을 챙길 필요가 있다. 또한 매우 건조하니 바디 로션 필수이다.

어학연수생으로 확정된 그날부터가 연수 시작.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확정이 된 그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 때부터가 진짜 연수 시작인 것이다. 손 놓고 파견 몇 일 전부터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때다. 영국에서 주말을 나름 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그 때부터 준비했다면 더욱더 알차게 보냈을 것 같다. 물론 살고 있는 브라이튼도 매우 좋지만 한 달을 영국에서 사는 특혜를 누리는 우리는 더욱더 영국을 돌아볼 의무가 있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여러 곳을 누비고 다닐 수가 있다. 절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영국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어 버린다. 나는 그게 너무 아쉽다. 영국은 런던만이 전부가 아니다. 런던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런던보다는 영국을 느끼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 달을 머무는 브라이튼도 볼 곳이 너무 많으니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라. 어디든 나가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봐서 가야 한다. 한 단어라도 더 많은 영어를 쓰려면 말이다.

내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연수 떠나기 전부터 회화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회화 책을 꼭 챙기고, 가서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다 와서 더 공부를 해도 모자르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달 쉬다 가는 것이다. 얼마나 준비하다가 왔느냐가 한 달 안에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특히 영어로 어느 정도 내 감정 표현과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면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귄다. 나는 한 달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아, 내가 좀 만 더 영어를 잘했더라면...’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할 수가 없어서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 이었다. 나는 처음에 이 연수를 신청할 때도 불을 자신이 없을 정도로 영어에 자신이 없었다. 눈치로 바디랭귀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할 수 없을 때의 답답함 느껴봐야 한다. 꼭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가기를 권한다.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나의 한 달간의 삶이 조금 달라졌을 것이다. 정말,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영국 땅을 밟기를 바란다. 캐리어에 옷이나 음식 말고도 책을 꼭 챙기고, 전자사전을 꼭 챙겨가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입 앞까지 올라왔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날 때, 표현이 생각이 안날 때 정말 답답하다. 영국에서의 삶은 나를 영어를 더 잘하고 싶게 만들었다. 수업을 모두 영어로 하므로 듣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같은 반 친구들이야 실력이 비슷하니 서로 말을 단어 단어로 하거나 열심히 문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눈치로 알아듣고 하지만, 영국인 선생님의 영어 수업을 따라가려면 듣기 또한 연습을 해가는 것이 좋다. 우리는 미국 발음에 익숙해져 있어서 영국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도 있으니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뭐하라고 시켰는데 뭐하는지 몰라서 혼자 멍하니 있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상황도 없으니 말이다. “I don't understand. Can you repeat please?”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다. 미리 준비한 영어가 한 달을 바꾼다. 노랑머리 친구들과 수업하고 싶다면 더 열

심히 준비해야 한다. 유럽인들이 많이 이 연수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잘 할수록 많은 문화를 접할 수가 있다.



영국에서의 한 달.

나는 아직도 이것이 꿈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여름밤에 꿈처럼 지나간 영국에서의 한 달은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다시 영국 땅을 밟게 되는 날이 올까? 오랜 비행 시간에 밤늦게나 돼서 영국에 도착했다. 홈스테이 집에 밤에 도착해서 하루를 자고 다음 날 아침 학교로 버스를 타고 갔다. 정말 바로 우리는 실전으로 던져졌다. 홈스테이 할머니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도착한지 12시간도 안 되서 우리는 버스를 타야만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그저 알아서 해야만 했다. 하나부터 열가지. 그 누구도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았다. 영국에서의 한 달은 정말 그랬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다. 그러니 각오하고 시작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야 하며 언제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한 달 동안 살았다.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말이다. 학교 수업은 내가 딱 생각했던 수업이었다. 내가 꿈꿨던 영국인 선생님이고 원으로 둘러앉아서 수업을 하며 언제나 대화가 오가는 수업이었다. 오전 수업은 너무 즐거운 분위기였다. 오후 수업은 영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이시간은 조금 아까웠다. 차라리 영어를 더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니 멍하니 있다가 오는 수업이었다. 첫 번째 주말은 런던에 갔다. 두 번째 주말에는 브라이튼 명소 세븐 시스터즈를 갔고 세 번째 주말은 옥스퍼드에 갔다. 브라이튼 명소는 오후 수업이 없는 평일에 가기를 추천한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말엔 영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길 바란다.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길 바란다. 영국에서 사는 것을 특권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금처럼 사용하길 바란다. 한 달은 정말 금방 지나간다.



영국 하늘을 이불 삼고.

친구와 브라이튼 비치에 누워있을 때 친구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돈다.

‘아, 하늘이 이불처럼 생겼네..’

브라이튼 비치에 누워있을 때, 홈스테이를 같이 하는 친구와 인생을 논할 때, 한국어로 비치가 노래방인 것 마냥 노래를 부를 때, 생각이 많아 질 때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언덕위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당황스러울 때, 목 끝까지 올라온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지 못할 때, 한국이 너무 그리울 때, 파크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밤 9시가 되도 해가 지지 않는 것에 너무 신기해 할 때 등등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한 달 동안 나의 꿈이었던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미래를 설계했던 이 한 달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마음 한구석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그곳에서 설계했던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이 앞으로도 내 앞길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부딪혀라. 버텨라. 영국은 너무 블랙홀 같이 당신을 빨아들일 것이다.
그곳이 나에게 그랬듯이.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서섹스대
파견기간 : 2010.07.03~2010.07.3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강소진
학 년 : 1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 영국을 선택한 이유는 축구와 음악 때문이었다. 오직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좋아하고 영국 브릿팝 밴드를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영국으로 가기로 정하였다. 영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공부를 하게 될 Sussex대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으로 떠나기 전에 각종 서류들을 제출할 때에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짐을 쌀 때에도 공항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통화를 할 때에도 별로 영국에 간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상하이를 경유해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학교에서 나온 스태프가 학교까지 우리를 안내해주었다. 학교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홈스테이 집에 도착하였다. 13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집 주인과 인사할 틈도 없이 바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홈스테이 주인아저씨께서 브라이튼 시내까지 태워다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는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브라이튼 시내에서 첫 날 쇼핑을 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바닷가에서 놀면서 탐방을 하였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옷은 정말로 싸다. 거의 대부분의 옷가게가 50퍼센트에서 많게는 75퍼센트까지 세일을 하고 있어서 쇼핑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옷은 정말 싸고 좋은 반면에 음식 값은 너무 비쌌다. 우리나라에서 500원짜리 생수하나가 영국에서는 1.50파운드정도해서 물도 마음대로 사먹지 못했다.

브라이튼 시내를 돌아보고 여기가 앞으로 지낼 곳이라 생각하니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다음날 학교로 첫 등교를 하였다. 첫 날 등교할 때는 옆집에서 같이 홈스테이를 하는 주인집의 아주머니께서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다. 첫 날에는 9시까지 가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영국에서 조심해야할 사항들, 학교에서 제공되는 것들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난 후 15명씩 강의실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였다. 테스트는 문법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과 1:1대화, 어떤 주제로 글쓰기를 하였다.

테스트를 통해 레벨을 정하고 레벨에 따라 반을 나눈 다음에 점심을 각자 알아서 먹고 오후 수업을 들었다. 첫 날이라 굉장히 어색했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학교 식당에 들어갔다가 비싼 가격에 놀라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샀는데 편의점 안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학교 안에서 전자레인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점심으로 우유하나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첫 날 배운 것은 전자레인지가 필

요한 것은 사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후에 한국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컵라면을 사먹었는데 한국에서 먹던 신라면 맛이 안 나서 아쉬웠고 뜨거운 물도 돈 내고 사야했고 젓가락도 안 줘서 이리저리 해매이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포크를 구해서 먹었었다.

우리나라 편의점을 생각하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컵라면 하나를 사도 젓가락도 주고 뜨거운 물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편의점 안에 다 있는데 여기는 편의점 안에 전자레인지도 없고 정수기도 없고 정말 먹을 것 하나만 팔아서 당황스러웠다.

다음 날 학교에 갈 때는 버스를 타고가야해서 버스 카드를 구매하였다. 한 달 버스 패스를 끊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기간이 나뉘져 있고 하루 버스 패스를 끊으면 하루 동안 몇 번이든 버스를 탈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티 머니 같은 것도 없고 버스 패스라고 해서 샀더니 종이여서 별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집에서 학교만 왔다 갔다 하여도 최소한 4번의 버스는 타야하기 때문에 영국 버스패스가 더 나은 것이었다. 우리나라였다면 버스를 탈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인데, 영국 버스패스를 사면 하루에 버스를 몇 번을 타든 횟수는 상관없이 버스를 많이 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오전과 오후 수업 모두를 들었다. 첫 날은 학생들끼리 자기소개를 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로 말하는 것도 어색한데 모르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은 잘 안통해도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고 얘기도 많이 나뉘어서 프로그램 종료 날이 다가올 때는 꽤 친해져 있어서 헤어지기 아쉬웠다.

오전 수업 때는 문법과 쓰기에 대해서 배워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고 오후 수업 때는 British Culture 시간이라 영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 다음에 각자 자신의 나라는 어떤 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업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해 설명할 때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애먹었던 적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최대한 의미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였을 지 걱정이 된다.

오후 시간 수업 때가 영어로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터키 등 더 많은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실이 바뀌어서 이제 잘 찾아갈 수 있겠다 싶으면 바뀌고 적응된다 싶으면 또 해매이게 되었지만 나름 재미있었다. 한 달 동안 Sussex대의 건물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2주째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왔고 선생님도 바뀌어서 간신히 적응한 수업이 또 다시 새로워져서 안타까웠다. 첫 번째 선생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맞춰서 말해줘서 알아듣기는 쉬웠는데, 두 번째 선생님은 알아듣기가 살짝 힘들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점심시간이었다. 물가가 워낙 비싸서 제대로 된 밥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었고, 대부분 빵이나 우유로 때웠다. 제대로 된 식당에서 사먹으면 비싼 거에 비해 맛은 없어서 돈이 아까울 뿐이었다. 그래도 그나

마 한국인 아저씨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정말 맛있지는 않았지만 양도 많이 주고 그나마 먹을 만해서 좋았다.

홈스테이에서 주는 저녁도 적응하기 꽤 힘들었다. 처음에는 반 이상을 남겼고 다음에는 삶은 사과를 줘서 아예 먹지도 못했다. 이런 요리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음식뿐이어서 한국음식이 매우 그리웠다. 아쉽게도 고추장 같은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삼겹살 사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추장을 챙겨왔더라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져왔으면 짐만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전자레인지도 없는 학교에서 햇반은 먹을 수도 없고 따뜻한 물을 사서 컵라면을 먹는다면 뚜껑을 뜯자마자 퍼지는 라면 향에 주위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그냥 한 달간 영국문화체험이라 생각하고 버텼다. 시간이 지나자 그럭저럭 음식에도 익숙해졌다. 우리의 주식이 쌀인 것처럼 그들의 주식인 감자와 빵에도 익숙해져서 밥도 거의 남기지 않게 되었다.

영국으로 가기 전에 영국날씨에 대해 많이 걱정을 했었다. 비가 오는 날이 많고 흐리고 날씨가 좋은 날이 드물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있었던 한 달 동안 영국에서 비가 온 날은 딱 3일이었다. 비가 왔다고 해도 비 온 날 중 2일은 비가 5분도 채 오지 않고 그쳤었고 한 번은 우리가 떠나는 마지막 날 소나기가 쏟아진 것뿐이었다. 영국에서 우산 한 번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현지 사람들이 말하길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원래는 이맘때쯤 비가 오고 날씨가 좋은 날이 많지 않은데, 올해는 무슨 일인지 날씨가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

비가 오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 살짝 쌀쌀한 날이 많았다. 영국은 해가 쨍쨍해도 바람이 불어서 덥지 않았기에 영국에 있던 한 달 동안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여름이라고 해도 최고온도가 27~8℃밖에 되지 않아서 긴팔을 입고 다녔다. 긴팔은 가디건 2개밖에 가져가지 않아서 긴팔 옷 몇 개를 더 구입하여서 입고 다녔다. 그런데 옷을 점점 구입하다보니, 짐이 많아져서 나중에 20kg을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덕분에 여행을 갈 때는 옷을 조금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다니다가 주말이 되면 런던으로 갔다. 브라이튼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하루 만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이다. 혼자서 왕복 기차표를 끊는 것보다 4명에서 같이 끊는 게 더 싸다. 브라이튼 시내에 가면 버스나 기차표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온 한국 사람들과 4명 기차표를 사서 돈을 아낄 수 있었다.

처음 런던에 갔을 때에는 확실한 계획 없이 가서 지도도 없고 처음엔 어디 가야할지 어떻게 가야할지 막막했었다. 어찌다가 운 좋게 지나가던 사람에게 지도를 얻어서 빅토리아 역에서 가장 가까운 버킹엄 궁전부터 갔다. 그 곳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보고 유명한 내셔널갤러리, 대영박물관, 런던아이, 빅벤 등등 많은 곳을 구경했다. 별다른 계획 없이 갔지만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곳을 갔다. 다음 주에 런던에 갈 때는 계획 없이 갔던 것을 후회하며 어디를 처음으로 갈지 여행루트도 짜고 교통수단도 알아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두 번째 런던에서는 자연사박물관,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포토벨로 마켓, 타워 브릿지, 첼시 구장에 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걸어서 다녔던 날보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녔던 날이 더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첼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첼시 구장에 갔던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런던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해 좁고, 작다. 아마 그래서 Tube라고 부르는 가보다. 지하철역도 깨끗하지는 못하다. 그래도 찾기 쉽게 되어있어서 처음타보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타고 다닐 수 있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코벤트 가든역'이라는 지하철역이다. 그곳에서 환승하려고 내렸는데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었다. 계단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저렇게 길게 줄을 서 있을까하며 계단으로 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 계단을 올라가도 가도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대충 아파트 20층까지 올라간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왔을 땐 숨이 차고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였다. 그 곳에서 절대 환승하거나 내리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버스는 대부분이 2층 버스이다. 1층에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위한 넓은 공간이 있다. 버스에 오르내릴 때도 문턱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사람도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또 버스기사가 버스를 내려준다고 해야 하나, 버스를 바닥 쪽으로 낮춰준다. 덕분에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다. 영국에 와서 별로 선진국이란 것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점이 아직 많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2층 버스의 2층에는 좌석이 짝 배치되어 있는데 2층이 천장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천장이 있든 없든 너무 뜨거워서 2층에 앉는 것은 추천할 게 못된다. 하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2층 앞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보면서 가는 것도 좋다. 2층 맨 앞자리는 유리창이 크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확보된다. 덕분에 버스를 타고가면서 자연스레 관광이 된다.

영국에서의 한 달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외국에서 가족도 없이 낯선 환경에서 살다보니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좋은 경험을 더 많이 했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더 넓은 시각과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기회를 할 수 있게 해준 학교 측에게 감사하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영국 석세스 대
파견기간 : 2010.7.05 ~ 7.30
학 부(과) : 디자인공학과
성 명 : 박덕진
학 년 : 1

난 2010년 7월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 반환점은 되지 못하지만 큰 깨달음을 준 7월이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일단 다른 나라에 건너갔으므로 모든 행동이 다 새로운 일이고 경험이었다.

영국으로 가는 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 처음 비행기를 타는 날이다. 부끄럽지만 대책 없이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 난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없어도 될 짐을 가져온 게 많았다. 후회했다. 하지만 영국에선 좀 더 편한 생활을 즐기리라 믿었다.(실제로 영국에선 가져온 짐을 하나도 안 쓴게 없다. 편했다.)

영국 가는 사람들 중 한명을 제외하곤 다 고학번의 선배님들 이었다. 너무 좋은 사람들 이었다. 여러모로 많이 의지했다. 참 감사하다.

일단 비행기를 탈 때 까지는 내가 이걸 타고 상해로 가는 기분이 안 들었다.(우리는 상해를 경유하여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갔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려 막 달리고, 비행기가 위로 기울어지며 하늘을 뜰 때, 정말 신났다.(속으론 아싸를 외쳤다.) 기분이 신기해서 플레너에 순간순간의 기분을 적었다. 첫 기내식은 김치밥이었다. 말 그대로 김치(볶음)와 밥. 기내식하면 비빔밥이 먼저 떠올라서 그걸 먹게 될 줄 알았었다. 그냥 저냥 잘 먹었다.

전날 지나친 기대감과 불안함에 잠은 안자고 짐챙기랴 정신이 없던 지라 상해에 온 오후엔 정말 피곤했다.

상해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는 11-12시간이 걸렸다. 말로 하니 짧게 느껴지지 정말 길었다. 나중엔 기내식에 괜한 짜증을 냈다. 좋았던 건 햇빛가리개를 열고 하늘을 보는 거였다. 정말 멋있었다. 하지만 하늘 보는 것도 긴 시간을 달래기엔 역부족 이었다.

휴. 정말 길고 긴 시간이 지나 영국에 도착했다. 많고 많은 짐을 보고 있자니 한숨부터 나왔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코치가 있었다. 코치를 타고 석세스하우스(석세스대학교의 건물)로 갔다. 약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다가 금세 잠이 들어버렸다.

석세스하우스에서 택시를 타고 각자의 홈스테이 할 집으로 갔다. 가자마자 호스트

와 인사를 나누고 방을 소개받은 뒤에, 곧장 침대에 누워 잠이 잤다.

솔직히 딱 내 방을 보고 든 생각은, '아 좀 구진데.'였다. 같이 지낸 누나도 내 방을 '해리포터의 방'이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난 나의 방에 익숙해졌다. 비록 작지만 포근(?)했고, 나름의 매력을 지닌 방이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화장실이 좀 멀다는 점이었다. 응접실과 부엌을 지나야 화장실이 나오니 밤엔 좀 귀찮았다.

호스트의 이름은 조세핀 이었는데, 정말 푸근한 인심을 가진 박식한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의 큰 매력은 인심이였다. 다른 호스트들과 달리 조세핀의 음식 대접은 푸짐했다. 점심으로 빵을 싸갈 수 있도록 제공도 해주고, 저녁식사 때도 부족하면 말하라며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영국에 관한 정보도 알려주셨다. 정말 감사했던 건, 우리의 어색한 영어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말하기 위해 노력해주셨다는 점이다. 말하는 데 틀린 문법이 있다면 정확히 짚어주셨다.

우리 말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왔었다. 다니엘, 마누엘, 또 1주일만 머무르고 떠난 브라질 학생까지 총 3명이다. 다니엘과 마누엘은 스위스사람 이었다. 특히나는 다니엘이 참 좋았다. 키가 너무 커서 위화감이 들긴 했지만, 매너 있고 박식한 17살 청년이었다. 내가 영국 와서 느낀 건 다들 자신의 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물어볼 때 잘 설명해주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누엘은 정말 활동적이였다. 저녁을 먹은 후엔 그의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됐었다. 18살인데 스위스에서 학교와 직장을 오고가는 사회인이였다. 마누엘은 2주를 머물렀는데 2주에 며칠을 빼곤 친구를 만나러 저녁에 나갔다. 그의 사교성이 조금 부러웠다. 온지 며칠이 안 되어 여자 친구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브라질 학생은 미안하지만 이름을 모르겠다. 하지만 착하고 보드를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너무 빨리 헤어져서 아쉬웠다.

대학교 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였다. 한번 갈아타야 했다. 처음엔 너무 멀다 생각되었는데 그냥 주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랐다. 브라이튼 에는 2층버스가 대부분이었는데, 77번 버스를 타면 2층천장이 뚫려있었다. 한동안 계속 2층에 올라가 탔던 기억이 난다.

처음 가서 한 것이 오리엔테이션과 반을 나누는 시험이였다.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고, 시험은 GRAMMAR와 1:1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아쉬운 건 GRAMMAR시험 결과를 지금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1:1면담은 교수님과 이루어졌는데, 영국에 간 이래로 제대로 된 대화를 처음 하는지라 꽤 떨려서 말을 잘 못하였다. 막상 말 할 때 느낀 건, 생각처럼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항상 읽고 쓰는 것에 익숙했던 지라 생각을 입으로 끌어내는 건 꽤 어려운 일이었다.

첫 수업은 어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GRAHAM(오전수업 선생님)은 서로 빨리 친

해질 수 있게 반 학생들을 1:1로 붙여주었다. 그리곤 어디서 왔는지, 또 여기엔 언제 왔는지 와 같은 질문을 시작하였다. 어색했지만 서로 친해지려 노력했다. 괜히 더 많이 웃었었다. 질문 시간을 가진 후엔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처음 책 수업을 했을 땐 조금 놀랐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수업이 전개 될 거라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중학교에서나 배울법한 문법이 나와 있고, 단어수준도 그랬다. 첫 수업 후엔 정말 이런 생각도 했다. '정말 내가 이런 거 배우러 영국까지 왔나.'.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그리곤 깨달았다. 그동안 난 머릿속으로만 공부를 했지 진정한 영어를 공부해보지 못했던 걸 말이다. 진짜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던 문법들이 말로 하면 꼬였다. 그리곤 문장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1개월이 지난 지금도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던 것만으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놀란 또 한 가지는 점심을 상당히 간단하게 먹는다는 점이었다. 카페에서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나마도 우리에게겐 비싸서 자주 먹지 못하였다.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빵을 싸와 그걸로 때우곤 했다. 그동안 먹은 딸기잼을 다 합쳐도 영국에서의 1달만큼만 못할 것이다. 잊을 수 없는 점심 중의 하나는 라면이다. 대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신라면을 발견했다. 아 정말 기뻐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맛의 라면이 아니었다. 간장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기름졌다. 분명 spicy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정말 반가웠지만 그냥 반가움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 이후론 다시는 안 사먹었다.

오후 수업은 영국의 문화를 배우는 수업이었다. 첫 수업 때 지도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미안하지만 좀 지루했다. 그래도 모르는 거니 열심히 배웠다. 이 수업도 대화를 위주로 진행되었다. 오후 수업은 초반엔 사람이 4명이었다가 2주 후엔 6명 정도로 늘었다. 프로그램이 2주 쯤 진행되던 사이에 나의 친구 마르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솔직히 처음엔 시끄러웠는데 나중엔 마르코의 나이를 잊은 젊음과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동했다. 나중엔 다들 마르코를 그리워했다.

오후 수업 중 가장 시간이 빨리 가고 즐거웠던 건 음식 관련 수업이었다. 정말 웃었는데 그 이유가 영국 음식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다. 일단 MELANNIE(오후수업 선생님)조차도 영국의 음식은 맛이 없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영국사람 조차도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나.'를 알고 웃었다. 그리곤 4명의 학생 모두 영국의 음식을 맛이 없다고 했다. 솔직히 한국에서 사람들이 영국 음식이 맛없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설마하고 그냥 넘겼다. 그런데 처음 영국 음식을 맛본 후엔 생각이 달라졌다. 정말 오묘하고 이상한 맛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에 익숙해져서 인지 그냥 저냥 입에 잘 들어갔다.

처음 브라이튼 시내를 나갔을 땐 모든 게 신기했다. 우리나라의 회색건물과 달리 다양한 색의 건물이 보였고 또 무언가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았다. 브라이튼은 바닷가 근처의 도시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다. 휴양지로 유명

한 이곳에선 날씨가 좋은 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근처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일광욕을 즐겼다.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엄청 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헛갈려서 생각지 못한 골목으로 들어갔었다. 그 골목에서 재밌는 것을 파는 상점을 발견했었다. 영국인들이 살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파는 곳이었는데, 내 눈엔 재밌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와 다른 모양의 국자도 있었고 입모양이 그려진 종이컵도 팔았다. 그리고 재치가 보이는 물건도 보였다. 그 날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갔다. 그나마도 브라이튼은 런던에 비하면 작은 도시인데 많이 돌아보지도 못했었다.

수업방식은 대화위주였다. 처음엔 방식이 맘에 안 들었다. 일단 우리는 이 연수를 마치고 토익을 보고 얼마나 영어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보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정작 토익은커녕 가장 기본적인 문법으로 대화연습을 하고 있으니 이럴 거면 왜 토익으로 실력을 검정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만약에 영국까지 와서도 한국에서처럼 문법이나 배우고 단어나 외우고 있으면 뭐 하러 긴 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배우나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론 정말 열심히 대화에 임했다. 그런데 놀라웠던 점이 오히려 한국에서 보다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머릿속으로 문법을 생각하는 것 보다 직접 말로 해보며 내가 틀린 문법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걸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한국어를 쓸 수 없다는 점도 하나의 도움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어를 써야했다. 말을 해서 무언가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말엔 그냥 집에 있고도 싶었는데 정말 시간이 아까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세 번의 주말 동안 두 번 런던을 갔다 오고, 마지막 주엔 옥스퍼드를 갔다 왔다. 런던은 정말 볼게 너무 많았다. 첫 주엔 '빌리 엘리어트'뮤지컬을 보았다. 솔직히 생각은 없었는데 보고 나선 정말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 보았었는데 그냥 그냥 배우 눈빛보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대충 이해했다. 빅벤과 런던아이도 정말 멋있었다. 템스 강 근처에 둘 다 있는데 다리에는 관광객들로 꽉 찼었다. 서로 사진 찍느라 바빴다. 갈라하면 자꾸 보고 싶어서 계속 돌아봤었다. 사진을 찍으면 풍경이 워낙 좋아서 너무 잘 나왔다. 박물관은 너무 많아서 설 새 없이 봤었다. 크기는 얼마나 큰 건지 난 지금도 내가 다 본건지 아니면 절반 본건지도 잘 모르겠다. 대영박물관은 없는 게 없었다. 한국전시관도 있었는데 꽤 볼거리가 많았다. 정말 전 세계의 신기한건 다 여기에 있었다. 그 외에도 V&A 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테이트모던을 가보았다. 그 중에 난 테이트모던을 즐겼다. 박물관을 2주 쯤 주말에 돌아다녔었는데 걸어서 모든 박물관을 도느냐고 정말 다리가 아팠다. 힘들게 테이트모던에 갔는데 웬지 기운이 나고 감상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볼 것도 딱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도 참 편했다. 갤러리인데 상당히 자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 주말엔 옥스퍼드에 갔다. 여행사의 당일패키지로 갔는데 좀 일찍 돌아온 것을 제외하곤 만족스러웠다. 옥스퍼드 가기 전에 윈저에 들렀는데 성을 갔었다. 영국 와서 성은 또 처음 보는 거라 그 때 셔터를 무척 눌렀었던 걸로 기억한다. 옥스

퍼드는 브라이튼, 런던과는 달리 좀 조용한 도시였다. 그리고 건물의 모양도 런던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다. 투어가이드가 있어서 그 날은 마음 편히 관광을 했었다. 그 날 내가 기대했던 것은 Christ Church College였다. 이곳은 해리포터 영화를 찍었던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역시나 사람은 많았다. 입구에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들어가야 했다. 이 곳 안에는 정원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대단했다. 보통의 학교 운동장보다 몇 배는 더 큰 것 같았다. 아쉬웠던 건 해리포터의 마법지팡이를 사려고 했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샀다. 보기엔 그냥 나무막대기인데 뭐 그리 비싼지 괜히 투덜거리고 나와야했다. 옥스퍼드에서도 박물관을 갔다. 런던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꽤 큰 규모였다.

이번 해가 영국의 날씨가 참 좋았다. 조세핀은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날씨인데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했다. 폭폭 찌지도 않고 그렇다고 추운 것도 아니고 딱 초가을의 날씨여서 돌아다니면서도 참 편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일단 가면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생기겠지만, 폭폭 찌는 날씨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난 좀 슬펐다. 우린 밤 비행기를 탔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제 한두 번 탔더니 열 몇 시간 비행기도 탈만했다. 그리고 밤에 떠나다 보니 잠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와 있어서 똑같은 시간이 걸려도 빨리 온 것 같이 느껴졌다.

7월이 참 뽕뽕했다. 내게 있어서 큰 경험이었고 갔다 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리라 생각한다. 단순히 영어만 배우러 갔다가 더 많은 걸 보고 배웠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여서 서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가고 싶다.